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신 심 중
편집인:윤 명 석
편집국장:손 경 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552-8310 FAX:563-3932
사서함: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12월 첫 주부터 93년도 교회일꾼 임명

남녀 서리집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등

우리 교회는 오는 12월 첫 주부터 93년도에 일할 교회 일꾼(서리집사, 구역 권찰,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을 임명한다. 특히 6일 4부예배시에 서리집사 및 구역권찰 임명식이 있는데, 이번 주중에 임명통지서를 받는 성도들은 이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

각 부서에서 일할 교회 일꾼들

은 93년 우리 교회의 목회 방침에 따라 각기 소속된 부서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당회는 93년도 일꾼들에 대한 자격 심의와 교육을 완료했으며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개최되는 11월 정기당회에서 최종적인 인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새로 임명받는 모든 교회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하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봉사 정신의 교훈을 따라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줄 것을 간절히 소원한다.

세례식 거행

교회는 지난 11월 22일 92년도 마지막 세례식을 거행했다. 이날 세례식은 신성종 목사, 김성을 목사, 김양홍 목사, 홍창민 목사가 집례함으로써 진행되었는데, 63명이 학습을, 64명이 세례를, 27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으며, 4명이 입교하고 6명이 개종하였다.

구제위원회차량관리부 자원봉사자 모집

93년도에 차량관리부원으로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 자격:우리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섬김의 온사가 있는 성도
- 모집기간:11월 29일~12월 13일
- 신청서:사무국에 비치

장년2부 특강

장년2부는 회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오늘(29일) 건강 관리에 관한 특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주제: "40대의 건강 관리"
- 강사: 이중석 장로(광혜의원 원장)
- 일시: 11월 29일 낮 12시 30분
- 장소: 장년2부 집회실(교육관 411호)

청년3부 특강

청년3부는 청년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책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강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 주제: "기독 청년의 제자의식과 생활"
- 강사: 김희수 목사(중동1부 지도)
- 일시: 11월 29일 오후 1시 15분
- 장소: 교육관 514호

중헌프리즘

◎...계절은 오는 것일까, 가는 것일까? 1992년 1월 1일 신년예배를 드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열한 달이 영원한 과거로 묻혀버렸다. 이제 남은 한 달은 결산과 새해 계획을 구상하고 준비해야 하는 특별한 날들만 남았다.

어떻게 보든 하루 해가 짧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하루가 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어떤 계획과 구

상으로 지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년 12월을 맞는 우리들의 기분은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초림 예수님의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민족 복음화와 남북 통일 재원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선교 1세기를 갓 넘은 한국 개신교가 이제 집약된 역량을 밑바탕으로 더 불어 사는 사회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 그

렇게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구가 소멸된다고 하면 우리들의 소망은 허구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힘과 용기가 솟고, 금년 겨울에 그렇게 출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또 구속사의 임무를 띤 초림 예수님의 도성인신(道成肉身)의 강림은 우리 피조 인생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하늘의 소망을 넘치게 줄 것이다.

준비하는 한 달, 성

탄의 기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지도자 선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학교 각 부서가 금년 학사 일정에 따라 졸업 사진을 찍는 광경을 볼 때 흐뭇하기도 하고, 수고의 결실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약 1년 동안 교회학교 교실에서 기도하며 배웠던 하나님의 전리의 말씀들이 졸업 사진과 함께 영원히 찍혀, 한평생 크리스찬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카메라 초점



▲ 지난 11월 15일 전개된 사랑의 헌혈운동. 이날 445명의 성도들이 이에 참여했다.

선교사님께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해외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보낼 성탄 카드 및 헌금을 사무국 총무과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송 관계로 카드는 12월 첫째 주일까지, 헌금은 둘째 주일까지 접수하오니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위원회

제4교구 친교 및 새가족 환영회

제4교구에서는 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 지난 1년 동안 축복과 은총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가족들을 환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구 가족들과 특히 새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12월 6일(주일) 4부예배 후
- 장소: 교육관 407호

제4교구장 최상규 장로

제15교구 새신자 환영 및 친교의 밤

15교구에서는 이번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은혜 중에 마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울러 새로 등록한 분들을 환영하는 새신자 환영회와 아울러 올 일년 동안 함께 기도하며 수고한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5교구의 성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 일시: 12월 10일(목) 오후 7시
- 장소: 만나홀
- 대상: 15교구의 모든 성도(어린이 포함) 및 가족

제19교구 새가족 환영 및 송년의 밤

1992년도도 다 저물어가고, 1993년도가 저만치에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세대의 종로리를 앞두고, 제19교구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대 오셔서 우리 모두와 하들의 한 황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제: "서로 사랑하라" (요13:34)
- 강사: 신성종 목사
- 일시: 12월 1일(화) 저녁 6시 30분
- 장소: 만나홀(선교관 지하1층)

· 19교구(역삼동 652~656, 661~664, 672~674, 677, 681~705번지)에 사시는 분은 누구나 참석을 환영합니다. 각종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19교구장 정하우 장로



중헌강단

신성종 목사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마9:1~8)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왕으로서의 복된 소식, 천국의 귀한 헌법을 선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에서는 열 가지의 기적을 통해 그가 바로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사람의 눈은 두 개이지만 둘 다 밖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보기보다는 밖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먼저 사람을 보면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옷부터 살펴봅니다. 그가 만일 옷을 잘 입었으면 그에게 상냥하게 대하지만 옷을 아무렇게나 입었으면 그를 깔보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외적인 면을 많이 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고 밖에 있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합심하는 신앙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마9:2)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막2:3)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으로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네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합해졌습니다. 사실 네 사람이 아무리 데리고 오고 싶어도 환자가 가지 않겠다고 했다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도 갈망을 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치 합심하는 신앙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신앙보다도 일치 합심하는 신앙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놀라운

천국시민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개인의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일치 합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3. '저희의 믿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마9:2)

첫째로, ‘저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중에도 ‘글쎄’ 하면서 믿다가 의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저희의 믿음’이란 주님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인데,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를 불사하는 저들의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중풍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의사이십니다. 병원에 가보면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등등 진료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과 의사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의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오게 되면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과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영혼의 병원에 가야합니다. 영혼의 병원은 바로 교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의 병까지 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속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의사이신 예수님께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병원의 간호사들은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의사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병원인 교회에 나오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가지 약을 먹입니다. 이 두 가지 약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은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고, 구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마9:6)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의사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마9:7)

또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다 보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영적으로 중풍병자인 우리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마치 마음에 열음이 아닌 물이 가득차 있다 할지라도 가기에 불이 들어가면 모두 녹듯이, 또 아무리 가슴이 뜨겁다 해도 차가운 것이 들어가면 식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절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영혼과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영혼의 병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마침내 우리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영혼과

5. 결론

우리 중에는 영적인 반신불수, 즉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절절한 믿음,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주님 앞으로 나와 내가 중풍병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영적인 반신불수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들의 침상을 가지고 합심 협력해서 주님께로 메고 나와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침상을 메고 나올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메고 나와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합심 협력해서 저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도를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환자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겸손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일치 합심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중헌교회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큰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우리 중헌교회를 사랑해주셨다. 특별히 교구를 사랑해주셨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셨다. 우리들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다.

1992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의 기쁨을 마친 한 해였다. 교구위원회에서는 교회의 목회 방침에 따라 구역 배가를 위해 몇 가지 중점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첫째는, 교구의 배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갖자. 둘째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양육하며 관리하여 일꾼으로 성장시키자. 셋째는, 구역을 배가하기 위해 신설 구역을 증설하여 새가족을 효율적으로 양육, 관리하자. 넷째는, 구역의 승패는 훈련된 일꾼을 많이 배출하는 데 있다고 여겨 구역장을 많이 양육하자.'는 것이다.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해주셔서 인도해주셨음을 감사드린다.

2. 92년도 사업결과 보고

교구는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에 최선을 다해왔고 많은 일을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사업만 보고를 드린다.

(1) 교구 24시간 연속 기도

교회의 부흥의 원리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데 있음을 알고 24시간 연속기도회를 교구별로 돌아가며 전개함으로써 기도의 불을 붙여왔다. 권사회의 24시간 기도회와 교구의 24시간 기도회는 뜨겁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기도의 불씨는 온 교회로 번졌고, 금요일집회를 통해 기도의 열기는 절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기도는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응답해주시므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부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열풍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세계에 번져 나가기를 원한다.

(2) 배가운동 추진

교회의 배가는 구역의 배가에서 출발을 한다. 배가운동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하나님의 뜻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 아래 기도하며 전도하며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전도위원회와 함께 전국 교회를 탐방하며 부흥의 원리를 배우기 시작을 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회의 부흥은 전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을 위해 배가운동본부가 결성되어 구역별로 기본 단위가 되

어 태신자를 갖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왔다. 각 교구는 나름대로 전도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1일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전도 결실을 맺는 날로 정하고 모든 전도 방법을 전개하였다. ① 성도들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을 우선적으로 전도하되, 이번 큰 잔치에 결실을 맺자. ②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③ 이웃의 믿지 않는 사람을 잘 파악하여 개인적으로나, 구역 식구들이 힘을

로 감사를 드린다.

(3) 새가족구역의 구역장 선정 및 교육

새가족을 효율적으로 관리,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준비되고 훈련된 일꾼이 필요하다. 이들을 양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각 교구에서는 특별구역장을 20명씩 총 400여명의 구역장들을 선발하여 6주간에 걸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특

(4) 교구찬양대회

찬양은 곡조있는 기도라는 말이 있듯이 교구찬양대회가 4월 5일(주일) 오후 3시부터 저녁예배 전까지 있었다. 이번에는 특별히 찬송가 가운데서 편곡 없이 부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유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을 바르게 부르자는 것이고, 또 예배시간에 파트별로 전 교인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는가 하는 취지에서였다.

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교구를 증설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17개 교구가 22개 교구로 증설되었다. 교구의 증설과 교회의 부흥에 발맞추어 일 분의 교구 담당 구역자들을 초빙하게 되었다. 더 많은 교구로 증설되어야 함에도 차츰 증설하기로 하고 5개 교구만을 증설하였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1993년도에는 정말 배가되는 44교구로 증설될 것을 확신한다.

3. 나가는 말

-1993년도를 위한 제언

1992년은 교구가 부흥을 위한 초석을 놓고 씨를 뿌리는 해였다면, 93년은 그 초석 위에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 해요, 열매를 거두는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92년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야겠다. (1) 구역의 일꾼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양육하는 교회 교육의 계획이 수립되어야겠다 (예를 들어 구역장 양성부). (2) 교구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교구별로 자율적으로 교회의 목회 방침에 맞도록 활발한 운영이 있어야겠다. (3) 새가족들을 잘 돌보기 위해 교구별로 교구의 일꾼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겠다. (4)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해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교구별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전도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5) 구역은 구역별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웃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일, 구역 식구들이 힘을 합쳐서 노인정 등을 방문하는 일, 경조사에 힘을 합쳐서 협력하는 일 등 해당 구역에서 중헌교회 성도들이 봉사하고 전도함으로써 칭찬을 받아야 한다. (6)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역이 배가되고 교구가 배가되는 것이다. 배가되기 위해 계속해서 태신자를 가지고 기도하며 잉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유기체다. 유기체는 살아있는 것이다. 살았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교회는 성장되어야 한다. 교구가 배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해야 하며 기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한다. 구역의 일꾼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해야 한다.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감추어주시고 능력의 일꾼으로 사용해주실 것이다. 교구는 교회의 모든 일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 93년도에도 변함없는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그 동안도 교구의 일꾼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을 주시길 간절히 원한다.

▶ 기획시리즈2 ◀

'92 교구 결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어가는 교구

최인근 목사(교구위원회 지도)



◀ 새가족들이 교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월로 새가족헌영회를 개최한다.



▶ 교구위원회의 대표적 행사 가운데 하나인 교구찬양대회

합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합심 전도하자. ④ 자주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자. 라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어찌했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듣게 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여 11월 1일 예수 사랑 큰 잔치에서 만명이 넘는 초청대상자가 교회를 방문했다. 많은 제정옥 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최소의 경비로 정말 실속 있는 충동원을 하기로 교구마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결과, 목표에는 약간 미달되었으나 성공적으로 충동원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중헌의 모든 교인들은 이제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자신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별히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이 교육을 맡아주셨는데, 구역장으로서의 할 일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면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특별구역장뿐 아니라 기존 구역장들도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다. 매우 유익된 시간이었다.

특별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이 전혀 없이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새가족구역을 조직 편성하여 이들을 양육, 관리하게 된다. 현재 특별구역장들은 중헌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을 양육, 관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교구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기존 구역과 다음없는 활발한 구역 활동을 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구마다 구역이 배가되어 교구가 배가되기를 기대한다.

각 교구마다 시간과 정성을 드려 연습에 열중했고, 이런 연습을 위한 모임을 통해 성도의 교제도 아름답게, 그리고 자연스럽고 이루어지는 효과도 있었다. 각 교구마다 연습한 찬양을 할 때는 어느 한 교구도 예외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천사의 합창과도 같았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런 찬양의 열기가 금요일찬양 집회로 연속되고 있다.

(5) 교구 증설

교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구의 증설이다. 처음에는 새가족 교구를 조직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였다. 교구장과 구역자의 열심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나, 교인들의 불평과 앞으로 많은 교구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기존 교구를 분할해서 교구를 증설

연말 행사 일정

우리 교회는 92년도의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 93년도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서별 총회, 직분자 임명 등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이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총회의 모든 성도들은 신앙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12월 행사 일정

날 짜	행 사 명	주 관
11월 29일(주일)	권사총회	권사회
2일(수)	안수집사총회	안수집사회
6일(주일)	서리집사 및 구역권찰 임명	당 회
13일(주일)	교사 임명	당 회
	성경연구원 수료식	성경연구원
20일(주일)	위원장협의회	
	교구총회	교구위원회
	남녀전도회총회	전도위원회
	찬양대원 임명	당 회
22일(화)	불우 이웃 위로 초청잔치	구제위원회
25일(금)	특별새벽기도회(새벽 5시 30분)	예배위원회
	성탄절축하예배(오전 9시, 11시 두차례)	
27일(주일)	정기당회	
	특별제직회	당 회
	원로 추대 및 장기 근속자 포상식	당 회
93년 1월 1일(금)	특별새벽기도회(새벽 5시 30분)	예배위원회
	새해예배(오전 9시, 11시 두차례)	

성경 아홉째권, 열째권

사무엘상·하

1. 제목
사무엘상·하로 붙여진 제목은 사무엘상의 첫부분에 나오는 중요 인물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전적인 중심 인물로 나온다.

2. 저자 및 연대

사무엘이 불적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부분만을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의 상당한 부분, 특히 다윗의 궁정 생활에 관한 기록은 아비달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학설과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의 생도 가운데 한 명이 그의 스승인 사무엘이 시작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했다는 학설이 있다.

3. 다른 책과의 관계

사무엘서는 통일 왕국 시대

와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단된 왕국의 혼란한 역사를 총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사무엘상·하의 구분은 사울의 통치기 말엽을 기준으로 나눈 것인데, 이는 중요한 역사의 계속성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사무엘상·하는 연속적인 이야기이므로 함께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록 목적

첫째로, 사무엘상·하는 왕국 수립을 중심으로 일어난 여러 사건에 관해 일관된 역사를 제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둘째로, 다윗의 여러 가지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하게 선택하셨음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과 그 후손에게 다스릴 권한이 속해 있음을 설득시키려고 기록하였다.

셋째로, 사무엘, 사울, 다윗과 그밖의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한 개인과 민족의 죄가 가져

오는 결과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넷째로, 시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으며 예루살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도 제시하고 있다.

5. 중심사상

사무엘상·하의 기본 사상은 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범죄한 백성에게 임박한 진로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역경은 이러한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의 생애를 통해 범죄한 인간이라 할 지라도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주고 있다.

● 구역예배 ●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양육특별공과
(1992. 12. 4)

제4주 기도를 응답받는 생활

· 본문 : 시편 5편 1절 ~ 12절 · 찬송 : 483장, 487장
· 요절 :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씀 생활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곧 기도 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풍성한 삶의 지름길이 됩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갖는 최대의 특권 중의 하나입니다.

1. 기도란?

(1) “기도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내 마음의 뜻을 살피주시도록 고해 드리는 나의 ()이며, 그 분을 향한 나의 ()이다”(시5:1, 2)

2) “아침에”란 어떤 시간을 뜻할까요?

3) 본문에서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시인의 믿음은 어떤 확신이었나요?

기도란 단지 의식이나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갖는 영적 대화입니다(에거스틴). 기도는 그 분과의 인격적인 교제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므로 생동감있는 신앙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기도의 유익

기도는 깨어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막아줍니다(마 26:41). 또 우리의 염려거리를 해결하고(빌4:6) 마음에 평강을 줍니다(빌4:7). 나아가 기도는 지혜를 얻게 하고(약1:5), 성령을 받게 합니다(눅11:13). 즉 우리는 기도으로써 하나님의 ()과 () 은혜를 얻습니다(히4:16).

3.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항상 쉬지 말고(살전 5:17), 낙망하지 않고(눅18:1), 특히 () 과(약1:6) ()으로써(빌4:6)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최대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없는 연구, 기도없는 사업, 기도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기도없는 지혜를 경멸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사무엘 차드워)

4. 응답되는 기도의 원리

응답을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도의 훈련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요동치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대로 하는 기도입니다(요일5:14, 15).

이러한 기도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들은 기도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 중심이 산만한 자세, () 동기(약4:3),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 용서하지 않는 인격,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태도, 중언부언, 의심 등.

4. 적용

(1) 균형잡힌 기도 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항목을 활용하십시오 :

〈ACTS 방법〉 기도의 내용에는 먼저 찬양과(Adoration) 자백과(Confession) 감사와(Thanksgiving) 간구와(Supplication), 나아가 중보기도(Intercession)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2) 매일 스스로 기도 훈련을 적극 권합니다. 우리는 이를 QT(Quiet Time : 조용한 시간)와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3) 기도 목록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는 기도의 일시, 내용과 응답의 체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가정뿐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여야 합니다.

(4)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 관한 위의 성구들을 암송하고 사용하십시오. 외우고 있는 말씀의 힘으로 모든 의심을 물리치십시오.